

2023년을 보내며

그리고 2024년을 바라보며

성경을 한자 한자 써 내려가고 또 애타게 전한
선지 사도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.

우리의 시작도 우리의 한 일도 우리의 할 일도
성경 말씀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그래서 한 해를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
성경의 또 한 페이지를 넘기는 그것과 같습니다.

말씀이 쓰였고
말씀이 전해졌습니다.

신천지예수교회는 비로소 그 말씀을 이루는
새 시대를 써 내려가겠습니다.



신천지예수교회

